

조선사대부 정치와 ‘正心’ 해석*

姜智恩**

1. 서론
2. ‘正心’과 『대학연의』
3. 『대학연의』와 『국조대학연의』
4. ‘정심’이 필요한 순간
5. ‘정심’의 방법
6. 결론

■ 국문요약

식민지화되어 가던 20세기 초 한반도에서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였을 국왕과 관료들에게 망국의 책임을 묻기보다 경서를 읽는 일반 독서인을 포함한 유학자 계층이야말로 국권 상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 독서인에게도 망국의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 유학자들이 제출한 상소문 가운데, 『대학』의 일곱 조목 가운데 하나인 ‘正心’ 즉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양법을 국왕에게 제시한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답을 찾아낼 수 있다. 군주의 ‘정심’을 요구하는 발언은, 국가경영에 유가 사대부와 국왕의 역할 분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학자들의 구상에 따르면 국왕은

* 이 논문은 2016년 2월20일 일본 교토의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에서 개최된 第49回 國際研究集會「『心身 / 身心』と『環境』の哲學—東アジアの傳統的觀念の再檢討とその普遍化の試み—」에서 발표하고, 2018년 3월30일 회의명과 동일한 제목의 논문집에 게재한 일본어 논문「朝鮮の帝王教育における『正心』論—儒家士大夫の共同統治の構想」을 기반으로,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한 것이다.

** 국립대만대학 국가발전대학원 조교수 / kangje94@ntu.edu.tw

그들의 말을 경청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야의 '산림'을 포함한 유학자들의 '정심'론은, 군주가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여, 유학자들과의 공동통치를 시행하라는 요구였다.

주제어 : 정심, 『대학연의』, 『국조대학연의』, 유가사대부, 제왕교육

1. 서론

한국이 식민지화 되어 가던 20세기 초, 대다수의 신지식인과 여론은 유가 지식인을 향해 격렬한 비판을 하는 한편,¹⁾ 국가민족을 위해 유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²⁾ 조선시대 유가는 국난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도,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유가의 자기반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어찌서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인 국왕과 관료들의 책임보다도 일반 독서인을 포함한 유학자들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일까. 그것은 조선시대에 유학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여, 국가운영에 유학 즉 경서의 내용을 사용하였으며, 관직에 있지 않은 유생도 자기 견해를 제출하는 상소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래에서 서술하는 것처럼, 조선의 조정에서는 『대학』의 '正心'³⁾에

1) 에컨대, 논설 「勸告儒林社會」, 『황성신문』(제3197호) 1909년10월12일, 申采浩 「문제없는 논문」(1928년1월1일 『조선일보』에 게재)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編 (1979) 『丹齋申采浩全集』 下, 형설출판사, 156면 및 申采浩 「旧書刊行論」(『大韓每日申報』 1908년12월18-20일에 게재)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編 『丹齋申采浩全集』 下, 100면. 등.

2) 에컨대, 논설 「유교 동포에게 경고함(續)」, 『大韓每日申報』(제2권 제187호), 1908년 1월 16일자.

3) 朱熹, 『大學章句』 經一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대한 해석을 통해 국왕에게 간언하는 일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선조 오백 년 동안 조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된 ‘正心론’을 분석하여 유학자들이 구상했던 국가경영에서 유가와 국왕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광범위한 유학자 계층에게 국망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正心’과 『대학연의』

조선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변방을 위협하는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혁혁한 무훈을 세운 무장이었으나, 문인관료들은 그 후계자들을 문치의 통치자로서 거듭나도록 교육하였다. 그 교육 내용의 중심에 ‘정심’론이 있다. 유학자들은 조선 왕조 성립 직후, 국왕 이성계를 향하여 “국왕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한 이래로, 말기의 고종시기(재위: 1863-1907)까지 국왕이 ‘정심’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였다.

조선 건국 직후 간관들이 태조에게 건의한 ‘정심’론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주의 마음은 다스림의 근원이다. 마음이 바르게 되면, 그에 따라 만사가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많은 욕심이 마음을 공격한다. 그러므로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둘째, 진덕수의 『大學衍義』를 경연의 교재로 채택한다.

셋째, 군주의 학문은 단지 내용만을 기억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향

欲齊其家者，先脩其身；欲脩其身者，先正其心；欲正其心者，先誠其意；欲誠其意者，先致其知；致知在格物。

상 경연에 참석하여 경연관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현명한 사대부에게 접하는 기회를 늘려 덕성에 감화를 받기 위해서이다. 또, 환관이나 궁궐을 접하는 기회를 줄이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창업의 군주가 후손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다.⁴⁾

위의 세 가지 중 첫째 내용에서 ‘정심’을 설하는 맥락은 중국 漢代 董仲舒의 대책문에서 유래한다. 이 대책은 동중서가 현량의 자격으로 한무제의 명에 따라 저술한 것이다.⁵⁾ 조선에서 국왕의 ‘정심’을 논할 때에 대부분 이 글을 실마리로 삼고 있다. 이 대책문의 골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된 차는 마음을 바르게 함으로써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르게 함으로써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르게 함으로써 만민을 바르게 하고, 만민을 바르게 함으로써 사방을 바르게 한다. 사방이 바르게 되면 원근의 모든 것이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邪氣가 끼어들 우려도 없다.⁶⁾ 그런데 한무제와 같은 뛰어난 통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화가 두루 미치지 못하여, 만민이 바로잡히지 못한 채로 있다.⁷⁾ 그 이유는 한조가 난세 뒤에 등장하여 전조의 악습을 고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을 통해 인민에 맞추는 정치를 하고 오상의 길을 삼가 행하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무제의 은택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⁸⁾

4) 『太祖實錄』卷2, 太祖一年(1392)十一月十四日(辛卯) “臣等聞君心, 出治之源也. 心正則萬事隨以正, 不正則衆欲得而攻之, ……然則有天下國家者, 其可不思所以正其心乎. 先儒真德秀作《大學衍義》, 以進經筵. ……經筵之設, 徒有其名, 而未聞進講之時. ……臣等以爲人君之學, 非徒誦說, 其所以日御經筵, 迎訪採納者, 一以接賢士大夫之時多, 而薰陶其德性, 二以親宦官宮妾之時少, 而振起其怠惰. 且創業之主, 子孫之所儀刑也.”

5) 班固 『漢書』卷56 董仲舒傳.

6) 위의 책: “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 四方正, 遠近莫敢不壹於正, 而亡有邪氣奸其間者.”

7) 위의 책: “今陛下貴爲天子, 富有四海, 居得致之位, 操可致之勢, 又有能致之資, 行高而恩厚, 知明而意美, 愛民而好士, 可謂誼主矣. 然而天地未應而美祥莫至者, 何也? 凡以教化不立而萬民不正也.”

동중서의 대책문 가운데 조선 상소문에서 자주 쓰인 부분은 위의 대책문 중 강조한 곳으로, 원문은 “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万民, 正万民以正四方.”이다. 이는 진덕수가 편찬한 『대학연의』의 ‘정심’ 서술 부분에 인용되어 있다.⁹⁾ 『대학연의』를 매우 중시한 조선조에서는 동중서의 문집이 아니라 진덕수의 『대학연의』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앞에 소개한 조선 건국 직후 간관들이 태조에게 올린 상소에서도 『대학연의』를 거론하면서 왕의 ‘정심’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국왕에게 ‘정심’을 촉구하는 많은 상소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董子曰’ 외에 ‘傳曰’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대학연의』는 위의 상소안이 채택된 이래 오랫동안 조선의 제왕교육의 교재로 쓰였다. 그러나 진덕수가 동중서를 인용한 맥락과 조선 유학자들의 맥락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조선 유학자들이 왕에게 정심을 요구한 맥락을 『대학연의』와 비교하여 異同을 확인하고자 한다.

3. 『대학연의』와 『국조대학연의』

『대학연의』는 그 책명에 나타나듯, 『대학』의 뜻을 부연한 책이다. 『四庫全書提要』에 따르면, 진덕수는 南宋理宗 紹定 2년(1229)에 『대학연

8) 위의 책: “聖王之繼亂世也、掃除其跡而悉去之、……至周之末世、大爲亡道、以失天下。秦繼其後、獨不能改、又益甚之、……今漢繼秦之後、如朽木糞牆矣、雖欲善治之、亡可奈何。……漢得天下以來、常欲善治而至今不可善治者、失之於當更化而不更化也。……爲政而宜於民者、固當受祿于天。夫仁誼禮知信五常之道、王者所當脩飭也；五者脩飭、故受天之祿、而享鬼神之靈、德施于方外、延及群生也。”

9) 眞德秀 『大學衍義』 卷1 「帝王爲治之序」.

의』를 저술하고 端平 원년(1234)에 理宗에게 바쳤다. 저자는 서문에서 『대학』은 君臣이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 등 네 항목에 대해, 經史書에서 인용한 중국 성현의 사적을 각 항목에 해당시켜 설명하고 있다.

조선의 군신은 경연이 아닌 자리에서도 빈번히 이 책을 들어 국정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權常愼(1759-1824, 호는 西漁)에 의해 조선판 『대학연의』인 『國朝大學衍義』가 편찬되었다.

권상신은 『대학연의』의 형식을 사용하여 중국 역대 史實 대신에 조선 태조부터 정조에 이르기까지의 行誼를 수록하여 『국조대학연의』를 편찬하였다. 그런데 鄭元容(1783-1873)의 『국조대학연의』 서문¹⁰⁾을 보면, ‘정심’을 핵심으로 한 진덕수의 『대학연의』와 저술 취지를 달리하는 조선 유학자의 초점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권상신의 서문에는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 것은 밝은 임금의 나라를 다스리는 道이다. 선한 말을 아뢰고 간언을 올리는 것은 어진 신하가 군주를 보좌하는 誠이다. 『書經』의 典·謨나 『詩經』의 노래는 모두 군신 상하가 어려운 일을 하도록 권하고 노력하고 경계하는 말이다.”¹¹⁾라고 하여, 첫머리부터 君과 나란히 臣을 절반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다. 경서의 내용 또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말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이 서문은 “모든 일과 모든 변화의 근원은, 오직 한 마음이며, 마음이 바로 잡히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바르게 된다. 그것은 모습이 단정하면 그 그림자도 반듯한 것과 같다. 이것이 증자의 『대학』이 ‘정심’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 예는, 당시 규장각 제학이었던 정원용이 1865년(고종2년)에 쓴 서문이 붙어있다.

11) 權常愼撰, 洪直弼校訂『國朝大學衍義』鄭元容序,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古 4250-8-v.1-9: “進德修業, 哲辟御邦之道. 陳善納誨, 良臣輔主之誠. 典謨於書經, 歌詠於詩雅者, 皆是君臣上下責難勉戒之辭也.”

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오랫동안 군왕의 귀감으로 삼은 까닭이다”¹²⁾라고 하였다. ‘정심’을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신을 동시에 거론하는 것과 정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진덕수의 서문은 ‘정심’을 포함한 『대학』의 8조목을 들고는 있다. 그러나 ‘정심’을 가장 강조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대학연의』의 본문에서는 동증서의 말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신이 생각하건대 증서의 논문 맹자 이후 아직 이에 미치는 자가 없다. 조정은 천하의 근본이고, 인군은 조정의 근본이며, 마음은 또한 인군의 근본이다. 인군이 마음을 바르게 하여 고요하게 청명하여, 일에 미혹되지 않으면 그에게서 나오는 호령이 모두 좋지않은 것이 없어 조정이 바르게 될 것이다. 조정이 바르게 되면, 현자와 불초한 자가 구분되어 군자와 소인의 지위가 역전되지 않고 백관이 바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이하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된다. 하늘과 사람은 본래 氣를 같이하므로, 인사가 바르면 바른 기가 응하고 선이 그로 말미암아 모인다. 인사가 바르지 않으면 샅된 기가 응하고 재앙이 여기에서 온다. 그 근본은 인군의 한 마음에 있을 뿐이다. 아아, 삼가야하지 않겠는가.¹³⁾

『대학』과 『대학연의』도 정심을 설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왕이 『대학연의』를 읽는 목적이 바로 ‘정심’을 위해서 라고는 하지 않았다. 한편 조

12) 위의 책: “萬機萬化之源者，惟一心，心正而後所發者皆正，如表端而影直。此宗聖氏大學之書，以正心爲治國之本，作千古時君之龜鑒也。”

13) 眞德秀『大學衍義』卷1「帝王爲治之序」: “臣按仲舒之論，自孟子之後未有及之者。蓋朝廷者天下之本，人君者朝廷之本，而心者又人君之本也。人君能正其心，湛然清明，物莫能惑，則發號施令罔有不臧，而朝廷正矣。朝廷正，則賢不肖有別，君子小人不相易位，而百官正矣。自此而下特舉而措之耳。夫天之與人本同一氣，人事正則正氣應之，此善祥之所由集也。人事不正則邪氣應之，此災異之所由臻也。其本在人君之一心而已。嗚呼，可不謹歟。”

선조에 있어서는, 우선 군주의 학문은 정심을 근본으로 삼고, 정심의 요체는 『대학연의』에 있다고 군신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유학자들은 군주가 『대학연의』의 정심을 익숙하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17세기의 李珥(1536-1584)는 『성학집요』를 저술하여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고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해 현인을 등용하는 것보다 우선할 것이 없다.¹⁴⁾

이이는 또한 같은 글에서, 제왕의 도를 가르치는 서적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학이 행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독서를 폭넓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요점을 정확하게 알아 정성을 기울여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정성을 다하여 실천하기 마련이다.¹⁵⁾

그런데 제왕의 도가 이미 경전에 구비되어 있고 요점만 파악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성학집요』를 편찬한 이유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도는] 사서육경에 분명히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글에 따라 도를 구하면 도리가 드러난다. 다만 진서는 방대하여 요점을 잡기가 어려워, 선정(정자)은 『대학』을 표장하여 규모를 세웠으므로 성현의 수많은 교훈이 모두 『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이 책이야말로 요점을 터득하

14) 李珥 『栗谷全書』 卷19, 「聖學輯要進劄」, 民族文化推進會 『韓國文集叢刊』 第44冊, 1988, 422면: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帝王之治, 莫先於推誠用賢.”

15) 위의 글, “書籍漸多, 經訓子史, 千函萬軸, 夫孰非載道之文乎. …… 後世之道學, 不明不行者, 不患讀書之不博, 而患察理之不精, 不患知見之不廣, 而患踐履之不篤, 察之不精者, 由乎不領其要, 踐之不篤者, 由乎不致其誠, 領其要, 然後能知其味, 知其味, 然後能致其誠.”

는 모범이다. 서산 진씨(진덕수)는 『대학』을 확장시켜 『대학연의』를 만들었다. …… 참으로 제왕이 도에 들어가는 지표가 된다. 그러나 권질이 너무 많고 문사가 산만하고, 사실을 기록하는 문장과 비슷하여, 실행하는 학문의 체는 아니라서 참으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완전히 선하지는 않다. …… 삼가 생각건대, 『대학』은 물론 덕으로 들어가는 문이지만, 진씨의 『대학연의』는 간요함이 부족하다.¹⁶⁾

이이에 의하면 『대학』은 경서에 갖추어진 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서적이다. 진덕수는 이 책을 부연하여 『대학연의』를 편찬하였으니, 이 책이야말로 제왕이 도에 들어서는 지표라고 해야 마땅하나, 간결하지 못해 실제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러 경전의 정화가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이는 『성학집요』를 엮어서 요점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조대학연의』는 『대학연의』의 어떠한 부분을 改訂하고 있는 것일까. 『대학연의』는 「格物致知之要二」와 「辨人材」 중 권17에서 권24까지 총 여덟 권에서, 姦雄·姦臣·讒臣·佞幸之臣을 분별해내는 것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¹⁷⁾ 이에 반해 『국조대학연의』의 「辨人材」에서는 「辨經術之才」, 「辨任用之術」, 「辨諫爭之直」, 「辨淑慝之分」으로 되어 있다. 『대학연의』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을 어떻게 변별해낼 것인가를 논하는 부분이 많은 반면, 『국조대학연의』는 좋은 인재를 얻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욱이, 『국조대학연의』는 상하 소통을 요점

16) 의의 책, 「聖學輯要序」: “四書六經、旣明且備、因文求道、理無不現。第患全書浩渺、難以領要。先正表章大學、以立規模。聖賢千謨萬訓、皆不外此、此是領要之法。西山眞氏推廣是書、以爲衍義、…… 誠帝王入道之指南也。但卷帙太多、文辭汗漫、似紀事之書、非實學之體、信美而未能盡善焉。…… 竊念、大學固入德之門、而眞氏衍義、猶欠簡要。”

17) 예를 들면, 卷17 「姦雄竊國之術」, 卷18~20 「檢邪罔上之情姦臣」, 卷21~23 「檢邪罔上之情讒臣」, 卷24 「檢邪罔上之情佞幸之臣」.

으로 하고 있다.

신은 史書를 읽을 때마다 어지러운 때는 많았고 잘 다스려진 때는 적었다는 것을 알고 탄식하다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다. 아랫사람은 충을 다하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고 윗사람은 잘 다스리고자 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나 아래는 항상 위의 불치에 시달리고 위는 항상 아래의 불충에 시달린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양쪽의 정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의 정은 위에 도달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위의 정은 아래를 알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나 아래는 항상 위에 도달하기 어려워 괴롭고, 위는 항상 아래를 알기 어려워 괴롭다. 이것은 어째서일까. 아홉 가지 병폐를 제거하지 않아서 이다. 이른바 아홉 가지 병폐는 위로 여섯 개, 아래로 세 개 이다. 남을 이기려 하고,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말재주를 부리고, 충명함을 자랑하고, 위엄을 사납게 하고, 강박함을 멋대로 하는 이 여섯 가지는 군상의 병폐이다. 아첨, 망설임, 두려워함, 이 세 가지는 신하의 병폐이다.¹⁸⁾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원인은 애당초 군주와 신하가 품었던 뜻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양쪽의 생각이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통하지 않는 원인은, 군주에 있어서는 남에게 이기려 하고 잘못을 지적받기 싫어하며, 교묘한 말솜씨를 믿고, 충명함을 과시하며, 자신의 위엄을 높이려 하고, 고집스럽다는, 허심탄회하게 신하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는 병폐 때문이다. 신하에게는 아첨하고, 주저하며 결행하지 않고, 군주를 두려워하는 등, 강직하게 군주의 잘못을 간하

18) 『國朝大學衍義』卷12 「格物致知之要弁人材，下諫諍之直」：「臣每讀史書、見亂多治小、因懷感歎、嘗試思之、竊謂爲下者莫不願忠、爲上者莫不求治、然而下每苦上之不治、上每苦下之不忠、若是者何。兩情不通故也。下之情莫不願達于上、上之情莫不求知于下、然而下恒苦上之難達、上恒苦下之難知。若是者何。九弊不去故也。所謂九弊者、上有其六、而下有三。好勝人、恥聞過、騁辨給、銜聰明、厲威嚴、恣強愎、此六者、君上之弊也。詔諛、顧望、畏慄、此三者、臣下之弊也。」(新唐書卷157) 陸贄傳에 의하면, 九弊는 본래 陸贄(754-805)가 唐德宗에게 바친 上奏文에서 제기한 것이다.

지 않는 병폐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하가 기탄없이 간하고, 군주는 넓은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사한 신하를 구별해 내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대학연의』와는 크게 다르다.

英祖(1724-1776)는, 자신에게 이 여섯 가지 병폐 중 무엇이 있는지를 신하에게 물었다. 신하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고 있다. 충명함을 과시하고 남에게 이기려 하고 잘못을 지적받기 싫어한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묘한 말솜씨를 믿는 네 가지 병폐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강박함을 멋대로 하는 이외의 전부가 다 해당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들 말대로 라고 한다.¹⁹⁾ 그리고 영조도 자신에게 이러한 병폐가 있다고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다.²⁰⁾

4. ‘정심’이 필요한 순간

조선 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왕에게 적극적으로 정심을 요구했다.

우선 국왕이 즉위하면, 처음을 바르게 할 급선무로서 정심을 꼽는다. 예를 들어 광해군이 즉위한 해에 올라온 소문은, 동중서의 예의 문구에 기반하여, “인군은 조정의 표준이며 마음은 또 모든 변화에 응하는 중심이다”라고 하고, 끝에서는 군주는 좌우의 충고에 따라 자기 허물을 고치

19) 『英祖實錄』卷36 英祖九年(1733) 12月11日: “上謂侍臣曰、奏議所謂君上六弊之中、予所不免者幾何。諸臣各言所見。參贊官洪景輔曰、銜聰明、好勝人、恥聞過、騁辯給四者、殿下不能免焉。侍讀官吳瑗曰、臣則竊以爲、恣強復之外、皆有之矣。檢討官尹得和曰、臣亦以爲然矣。”(奏議는 『宋名臣奏議』인듯 하다.)

20) 위의 책: “予識寡而學謬、志大而才疎、發言行事之間、果有許多病痛。大抵慨世之心過、而容物之量少、所以有好勝人之病也。事有失着、便覺中心愧悔、所以有恥聞過之病也。至若騁辯給、則是學問不足之致也。銜聰明、是識小志大之故也。又有不當威而威者、近於厲威嚴、惟是恣強復一事、予實無之矣。”

고 마음을 비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점점하고 일을 행하는 근본으로 삼는 것이 처음을 바로잡는 급무라고 하였다.²¹⁾ 효종 즉위년(1649)에는 “정심은 치국의 큰 근본이다”라고 하였고,²²⁾ 영조 원년에는 정심으로써 조정을 바로잡기를 권했고,²³⁾ 순조 원년에는 “인주된 자는 정심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종(재위 1720-1724)이 세자 시기에 가례를 행했을 때에도 정심에 힘쓰도록 요구하였으며²⁴⁾ 세자 때의 정조(재위 1776-1800)에게도 정심으로써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과, 학문을 부지런히 하여 정심의 근본을 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⁵⁾ 막 즉위한 국왕과 미래의 국왕인 세자에게 정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국왕의 정심이 강조되는 시기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이다. 성종 시기에 가뭄이 심하자, 마음을 바로잡아 경사에게 보여주고 경사를 바로잡아 사방에 보여줄 것을 건의하였고,²⁶⁾ 연산군에게는 天災는 하늘의 뜻이니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실제적인 대응, 즉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덕을 닦고 경연에 참석하여 성학을 연마하고 여러 신하들을 접하여 다스림의 도를 묻고, 간쟁을 듣”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⁷⁾

유학자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재해를 통해 무엇을 알리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반성할 것을 국왕에게 촉구하였다. 반성의 구

21) 『光海君日記』(中草本) 卷2 光海君即位年(1608) 4月1日(丁巳): “法語之言、從而改之、巽與之言、悅而釋之、舍己從人、虛心好問、以爲檢身制事之本、非殿下正始之急務乎.”

22) 『孝宗實錄』 卷2, 孝宗即位年(1649) 10月15日(庚子).

23) 『英祖實錄』 卷3 英祖一年(1725) 1月11日(庚戌).

24) 『肅宗實錄』 卷62 肅宗44年(1718) 10月7日(辛亥).

25) 『英祖實錄』 卷77 英祖28年7月31日(戊子).

26) 『成宗實錄』 卷130 成宗12年(1481) 6月21日(甲子).

27) 『燕山君日記』 卷24 燕山君3年(1497) 6月28日(戊戌).

체적 내용은, 정심의 요체를 모르고 수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²⁸⁾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군주에게, 재변이 끊이지 않는데 왜 간언을 따르지 않느냐고 힐문하기도 한다.²⁹⁾ 국왕의 정심을 요구하는 수많은 상주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부분 “따르지 않았다(不從)”라는 기록을 남긴 연산군이 최후에는 폐위되고 말았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부당한 왕명이 내려졌을 때에도, 왕의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정심에 힘쓸 것을 요구한다.³⁰⁾ 인사나 상벌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임금에게 私意가 있기 때문에 오판이 내려진 것이라 하고, 예의 동중서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조정을, 나아가 만민을 바로잡는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정심을 요구하고 있다.³¹⁾

불교 사원을 지원하는 등 ‘이단’을 옹호하는 왕명이 내려졌을 때에도 왕의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³²⁾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물론 심지어 민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文王의 정심이 백성을 교화한 점을 염두에 두고 국왕이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28) 『中宗實錄』 卷90 中宗34年(1539) 5月8日(乙亥), 36年11月28日(庚戌), 『宣祖實錄』 卷158 宣祖36年(1603) 1月12日(己巳).

29) 『顯宗改修實錄』 卷9 顯宗4年(1663) 10月28日(壬戌).

30) 『燕山君日記』 卷13 燕山君2年(1496) 3月4日(壬午).

31) 『中宗實錄』 卷1 中宗1年(1506) 10月7日(壬子).

32) 19세기말에 이르러서는 동학이나 서학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33) 예를 들면, 『肅宗實錄』 卷11 肅宗7年(1681) 1月25日(己卯) 기사.

5. ‘정심’의 방법

정심에는 방법이 있다. 마음은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방법을 알아서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정심을 방해하는 행위와 정심에 도움을 주는 일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 많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문이지만,³⁴⁾ 제왕의 학문은 일반인들의 학문과는 다르다. 효종 시기에, 학술과 언론을 관장하는 홍문관 관원들은 왕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은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심에는 방법이 있다. 삼가고 게을리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악(속악) 여색 노리개 등 심지를 해치는 모든 것은 일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 강학은 역시 그 근본이 된다. 인주의 학문은 범인의 학문과는 다르다. 훈고나 구두는 제왕의 학문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섭렵하여 잡박한 것은 제왕의 학문이 아니다.³⁵⁾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군주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요컨대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학이 주된 방법이지만, 단순히 지식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제왕의 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위에서 거론된 것 외에도 불교의 인과응보설을 좋아하거나 서화를 스스로 그리는 것도 정심을 방해한다.³⁶⁾ 거꾸로 말하면 왕이 불교를 좋아

34) 『仁祖實錄』 卷10 仁祖3年(1625) 9月20日(乙丑): “治心之術、莫如學問.”

35) 『孝宗實錄』 卷13 孝宗5年(1654) 10月23日(己卯): “心不能自正、正心有道、敬而無怠、操而不放。至於聲色玩好、凡可以蠹吾心志者、一切不近。……而若夫講學、又其本也。人主之學、異於凡人、訓詁口讀、非學也、涉獵雜博、非學也.”

36) 『中宗實錄』 卷272 中宗23年(1492) 12月25日(辛酉).

하거나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³⁷⁾ 그리고 아래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반드시 제왕의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선제는 명분과 실재를 조사하여 명실이 상응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된 원인을 알아내었다. 그 공을 논하자면 중흥의 군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말하자면 화를 기초한 군주임을 면할 수 없다. …… 인군이 자기가 분명하게 살피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신하의 일을 행하면 아랫사람들은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아, 만사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살피는 것은 인군의 미덕이 아니다.³⁸⁾

인주의 근면은 필부의 근면과 다르다. 大舜의 삼가함, 周 成王의 무일한 근심, 이는 부지런히 할 것을 부지런히 한 것이다. 진시황이 문서를 저울에 재어 매일 불 분량을 정한 것이나,³⁹⁾ 수 문제가 衛士가 밥을 나를 정도로 바빴다는 것 등은 어찌 인군이 종사할만한 일이겠는가.⁴⁰⁾

임금은, 신하가 해야 할 일을 나서서 하거나 일반인처럼 부지런히 바쁘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떤 방면에 공을 세워 중흥의 군주라는 명성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상적인 제왕이 되는 길은 아니다. 제왕학이 지향하는 것은 역대 제왕들의 도를 배우는 것이다.

37) 『燕山君日記』 卷26 燕山君3年(1497) 8月2日(辛未).

38) 『成宗實錄』 卷234 成宗20年(1489) 11月12日(丙寅): “記事官南宮瑬進曰、漢宣帝綜核名實、有名實不相應者、必知其所以然。論其功則中興之主、語其失則未免爲基禍之主。……人君自以爲明察、下行臣職、群下不肯任事、則萬事必至於隳矣。然則明察非人君之美德也。”

39) 司馬遷 『史記』 卷6 秦始皇本紀: “天下之事、無大小皆決於上、上至以衡石量書.”

40) 『中宗實錄』 卷12 中宗5年(1510) 11月22日甲戌: “世弼曰、人主之勤、非若匹夫之勤也。大舜兢兢業業、成王無逸之勤、是所當勤而勤者也。若秦始皇衡石程書、隋文帝衛士傳餐、豈可謂人君之勤乎.”

군주는 옛 제왕의 도에 뜻을 두고 제왕이 힘쓰던 학문을 배우고 심신을 닦는 것을 모두 제왕을 본받아서 하면, 이렇게 하면 조정이 어찌 바르게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어찌 잘 다스려지지 않겠는가.⁴¹⁾

한편 후세의 군주, 즉 패도의 군주를 배우려 한다면 조정을 바로 잡을 수도, 일을 거둘 수도 없다.⁴²⁾ 그리고 제왕의 학문을 배우는 주요한 장소는 경연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정심의 요체는 경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중이라도 경연에 참석해야 하며⁴³⁾ 정기적으로 경연을 열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⁴⁴⁾

경연을 여는 것은 단지 經史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하의 말을 듣기 위해서이며 간언은 반드시 귀담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군주는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정심도 경연에 참석하는 것도 최종적인 목적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간언을 담당하는 대간이 군주의 권위를 침해할 때는 군신 간에 논쟁이 일어나지만 신하들은 일관되게 대간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⁴⁵⁾ 정심과 간언을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간언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이를 엄중히 책하며,⁴⁶⁾ 간언을 신중히 하라는 광

41) 『孝宗實錄』 卷19 孝宗8年(1657) 11月2日(庚子): “如人主能以古昔帝王之道爲志、講乎帝王所懋之學、而其治心修身、一以帝王爲法、.....如是則朝廷安得以不正、庶事安得以不理乎.”

42) 앞의 책, 같은 면: “如其不然、而以後世人主之事爲志、則其立心卑下、用意苟且、天理不必復、己私不必克、其所云爲、無非循私任數之歸矣。如是則朝廷安得以正、庶事安得以理乎.”

43) 『顯宗實錄』 卷6 顯宗4年(1663) 3月25日(癸巳).

44) 『英祖實錄』 卷61 英祖21年(1745) 1月21日(癸巳), 『高宗實錄』 卷10 高宗10年(1873) 10月29日(甲辰) 등.

45) 『明宗實錄』 卷5 明宗2年(1547) 6月4日(癸未).

46) 『明宗實錄』 卷28 明宗15年(1560) 5月16日(辛巳): “人君端本出治之道、不過曰正心從諫而已.”

해군의 발언을 망국의 말이라고 비난한다.⁴⁷⁾ 신하를 경시해서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되고, 학문은 진보하지 않는다. 사심을 제거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정을 바로 하여, 백관을 바로하고, 만민을 바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⁴⁸⁾ 정심의 요체는 분노를 억제하고 욕망을 닫는 것이다.⁴⁹⁾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⁵⁰⁾ 즉,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이유는, 불쾌한 간언을 들었을 때 자기마음을 비우고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6. 결론

조선시대의 유가는 조선 왕조의 창립을 극력 저지한 인물인 鄭夢周(1337-1392)를 이상적인 사대부상으로 하였다. 정몽주는 새 왕조 개창을 저지하려다 결국 죽임을 당한 인물이다.⁵¹⁾ 그러나 새 왕조가 문을 연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의 절의가 표창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내내 끊임없이 칭송되었다. 조선 중기에 연산군과 광해군은 유가에 의해 폐위되었고, 본래 왕위의 계승권자가 아니었던 중종, 인조 등은 이들 유가들에 의해 옹립된 국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인 출신인

47) 『光海君日記』(中草本) 卷2 光海君即位年(1608) 4月14日(庚午): “殿下又以出納不可不慎教政院、臣不勝痛哭流涕焉。殿下安得爲此亡國之言乎? 人君大開言路、使之盡言不諱、尙多壅閼之患、況從而塞之哉。”

48) 『仁祖實錄』 卷7 仁祖2年(1624) 9月13日(甲子): “臣等竊聞殿下近日臨筵之時、頗有輕視群下之色、輕視則驕心生、驕心生則自廣狹人、而終謂之莫己若也、安有如此而能進其學者乎? 伏願殿下虛以受人、勤以勵己、緝熙殫心、期至於純亦不已。……伏願殿下去私心、如禦暴客、期至於正心以正朝廷、正朝廷以正百官、而使萬民皆正焉。”

49) 『孝宗實錄』 卷9 孝宗3年(1652) 10月25日(癸亥): “正心之要、懲忿窒慾是也。” 외에 『顯宗改修實錄』 卷16 顯宗7年(1666) 10月25日(壬申).

50) 『顯宗改修實錄』 卷17 顯宗8年(1667) 5月11日(甲寅): “曷嘗見帝王學不修心不正、違賢拒諫、傲然自聖、而有不下於亂亡者耶.”

51) 『太祖實錄』 總序參照.

이씨 왕가는 유학을 몸에 익힌 문치의 군주로 거듭났다.

유학자는 국왕에게 정심을 요구할 때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든가, 정심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등 거리낌 없는 발언을 하였다. 군주가 위기의식을 지니고 항상 자신을 반성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왕조 개창과 국왕 폐위 등에 스스로 참여하여 국정운영의 주체로 활약해 온 유학자들의 사명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주의 마음을 바로 잡음으로써 만민을 바르게 하는 데에 이르러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맥락을 제시한 동중서의 설은 원래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돼 있다는 설로부터 사람의 행위가 天災를 부를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설을 전개한 것이다. 동중서의 이 설을 실마리로 삼아 조선 조정에서 제출된 정심론에서, 군주는 분노를 억누르고 불쾌한 간언이나 군주의 권위를 침해하는 발언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군주는 구체적인 직무에 대해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인재를 분별해 내어 적절한 인사와 상벌을 시행하기 위해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직접 일을 하는 것은 군주가 아니라 신하이며, 군주는 적절한 신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역대 제왕 중 정심에 성공한 사례를 배우고 실패한 사례를 자신의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요컨대 군주가 정심에 힘쓰는 최종 목적은 간언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데에 귀결된다.

余英時는 “송태종은 ‘共治’를 말하면서도 그 의미는 ‘政治의 도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말하면, 송대의 皇權은 사대부가 정치 주체로서 자임하면서 내놓는 각종 목소리에 결국 容忍의 아량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보면 송은 ‘후삼대’라는 칭호에 부끄럽지 않다.”⁵²⁾

52) 余英時(2007) 『朱熹의歷史世界：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 台北：允晨文化, 312면.

라고 하였다.

조선 유학자가 군주의 정심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발언은 바로 정치의 주체를 자처하는 그들이 국가경영에 있어서 儒家와 국왕의 역할 분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들의 구상에 따르면 국왕은 그들의 간언을 경청하여 자기반성을 하고 그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야의 이른바 산림을 포함한 유가의 적극적 정치참여는 20세기 초 한반도에서 국정운명을 책임져야 할 국왕이나 관료들만이 아니라 단지 독서인이 포함된 유학자 계층에게 망국의 책임을 묻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말해준다. 조선조에서는 유학자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 관료들만이 왕명을 받들어 국정운영에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재야의 독서인을 포함한 유학자 계층은 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해석과 부연을 통해 군주가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협력하여 유가정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바로 국왕을 용인의 아량을 지닌 자로 거듭나게 하는 작업이었다.

〈참고문헌〉

〈원전자료〉

朱熹, 『大學章句』『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班固, 『漢書』 卷56 「董仲舒傳」

<https://www.chineseclassic.com/content/1503>

眞德秀, 『大學衍義』 <https://ctext.org/wiki.pl?if=gb&chapter=197980>

權常愼撰, 洪直弼校訂, 『國朝大學衍義』(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필사본 古 4250-8-v.1-9)

李珣,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第44冊, 民族文化推進會, 1988.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太祖實錄』『明宗實錄』『英祖實錄』『光海君日記』(中草本)『孝宗實錄』『英祖實錄』
『肅宗實錄』『英祖實錄』『成宗實錄』『燕山君日記』『中宗實錄』『宣祖實錄』
『顯宗改修實錄』『燕山君日記』『仁祖實錄』『孝宗實錄』

司馬遷, 『史記』 卷6 「秦始皇本紀」

<https://ctext.org/shiji/qin-shi-huang-ben-ji/zh>

논설 「유교 동포에게 경고함(續)」, 『大韓每日申報』(제2권 제187호), 1908년 1월 16일자.

〈연구논저〉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編(1979), 『丹齋申采浩全集』 下, 형설출판사.

余英時(2007), 『朱熹의歷史世界: 宋代士大夫政治文化的研究』, 台北: 允晨文化.

Gentry Politics and Interpretations of ‘Correcting Thought (正心)’ in the Joseon Period

Kang, Ji-eun*

In the early 20th century, public opinion in Korea tended to point out that the main cause of the loss of national rights is the Confucian class, including non-government figure, who read the Confucian classics, rather than asking the king and the bureaucracy who were in charge of national affairs. What made Confucian feel that they were responsible for the country's colonialization? Among the recommendation submitted by Confucian scholars, the following answers can be found from the ‘Correcting Thought’, which is one of the seven items of Daxue, and recommend the king ‘Correcting Thought’ as a self-discipline. The statement calling for ‘Correcting Thought’ of the king can be interpreted as a presentation of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King and the Confucians. In their scheme, the king must listen to their opinions, reflect on himself, and accept their views. The ‘Correcting Thought’ theory of Joseon Confucian scholars, including non-government figure demand that the king accept Confucian's advice open-mindedly and give energetic co-operation in governing the country.

Key Words

Correcting Thought, *Daehak Yeonyi*, *Gukjo Daehak Yeony*, gentry, education for the King

논문접수일: 2020.2.9, 심사완료일: 2020.2.18, 게재확정일: 2020.2.20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Institute of National Development at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 E-mail: kangje94@ntu.edu.tw

